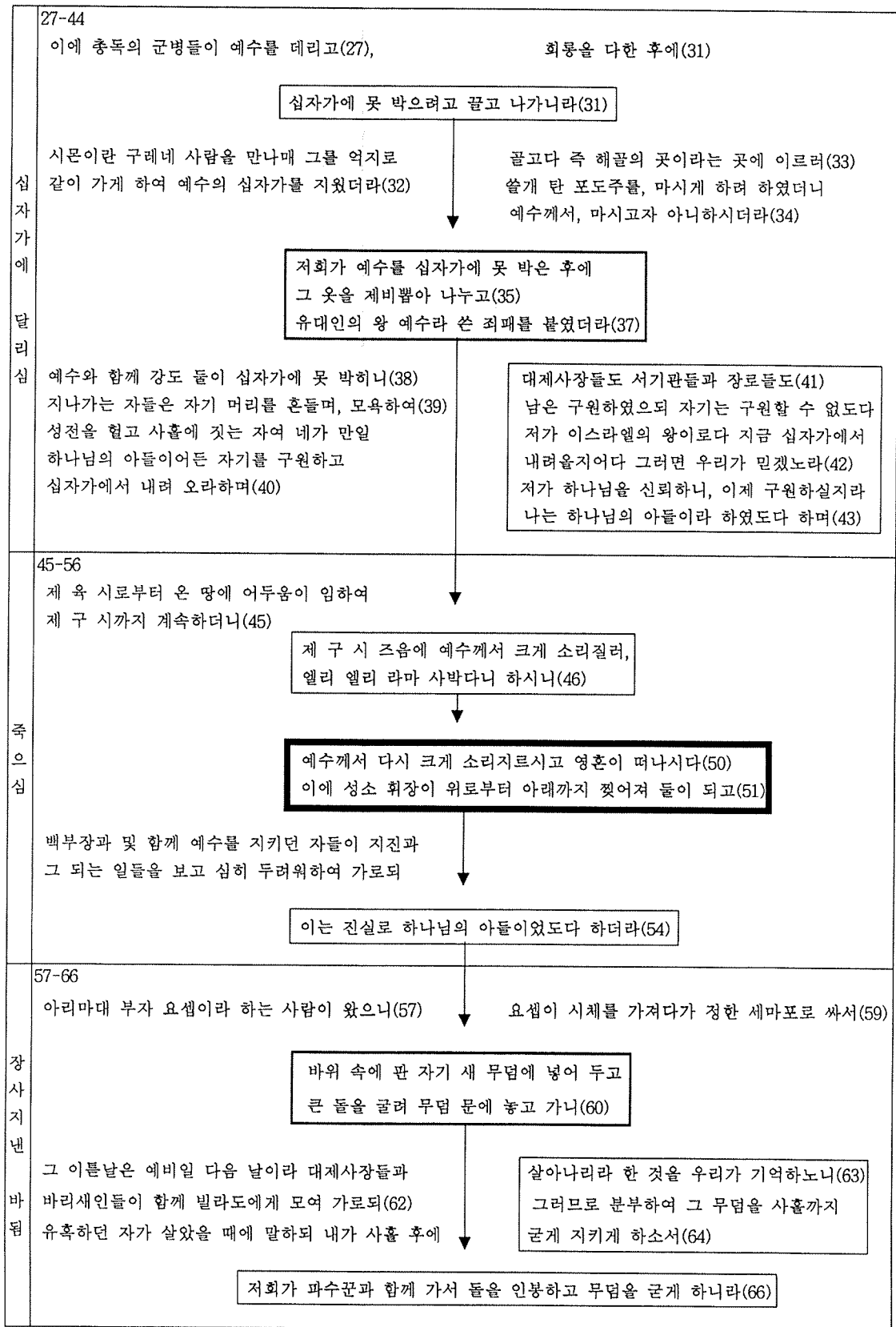


마태복음 27:27-66절 개관도표
 주제 :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됨



마태복음 27:27-66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됨

요절 :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본 문단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됨” 내용입니다. 27장의 첫째 문단(1-26)의 중심점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왕이시라는 것과, 죄가 없으시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본 문단에서는 그런 분이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가에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실물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휘장은 왜 막혀있었으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27-44) 십자가에 달리심

둘째 단원(45-56) 죽으심

셋째 단원(57-66) 장사지낸 바 됨

첫째 단원(27-44) 십자가에 달리심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27),

① 이제 사형집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얹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회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28-31) 합니다.

②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끌고다 죽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32-34).

③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 패를 붙였더라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35-38).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 | |
|-------------|--------------------------------|
| 그는 실로 | 우리의 질고를 지고 |
| |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
| |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
| |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 그가 찢림은 |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
| 그가 상함은 |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
|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사 53:4-8).

④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 오라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
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
라”(39-44).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들렀으며

내게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시 22:6-18).

둘째 단원(45-56) 죽으심

“제 육 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더니”(45).

① 주님은 “때가 제 삼 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막 15:25), 즉 오전 9시에 못 박히
셨습니다. 그런데 제 육 시로부터 제 구 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했으니, 12시

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구 시 즘에”(46),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만에 운명하셨습니다.

② 그렇다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주는가? 이는 첫째로, ㉠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46) 하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심”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한 줄기 빛마저도 거두실 정도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육신의 고통은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맛보신 고통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 위에 부여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고통이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요 1:9)이셨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세상에 임한 빛을 멸한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고후 4:4, 6)를 비취주셨던 것입니다.

③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51) 합니다. 이 표현 중에서 핵심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51-52) 한 묘사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축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500년 동안이 굳게 닫혀져 있던 휘장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경이로운 사건인가를 수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④ 주님은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짐은 멀리 떨어진 성전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고 경외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성전)을 지으라(출 25:8)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출 26:33), 즉 가로막으라는 식양(式樣)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휘장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음”(사 59:2)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구약시대 1500년 동안 그토록 많은 제물이 번제단에서 드러졌으나 휘장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지 못했음”(히 10:4)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짐승이 아닌 사람)을 예비하셨도다”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즉 죄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그래도 필요하단 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5, 10, 19-20)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합니다. 이것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신 구속사적의미입니다.

⑥ “백부장과 밋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54)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지도자들뿐이라는 사실에 형제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저는 지금 2천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어떠한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57-66) 장사지낸 바 됨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57).

① 본 단원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 주님의 시체를 장사(葬事)지냈다는 것이고, 둘째는, ㉡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왕이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었고, 그리고 분명히 장사지낸 바 되었으며, 그 무덤을 인봉하고 파수꾼을 세워 지켰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버지”(요 8:44) 사탄의 추종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예수가 가사(假死)상태에 있었다가 바위의 찬 기운에 소생하여 어디론지 살아지고 말았다는 허황된 거짓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주님의 시체를 장사지내는 일을 베드로나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57)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이사야의 예언으로 인도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사 53:9)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강도들(악인)과 함께 못 박히시고, 부자 요셉에 의하여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60)에 장사되었다는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③ 마가복음에서는 요셉을 가리켜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막 15:43)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요, 존귀한 공회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온 백성이 배척하여 죽임을 당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가? 이는 그가 주님 편에 섰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를 “당돌히”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거나 조건부적이 아니었기에 “당돌한” 행동이었습니다. 비난과 멸시,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한 일이기 “당돌히” 라고 말씀할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41편에는 상반된 두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9) 하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가룟 유다에게 응하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약(貧弱)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시 41:1-2)

이 대목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응하여 진 것은 아닐까요?

④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62-63) 합니다. 주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라”(16:21) 하고, 세 번이나 예고한 것을 저들도 전해듣고 기억하고 있던 말인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도,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64)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파숫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66) 합니다.